

2018학년도 자연계 성적대별 대입 수시모집 지원전략

이제 수험생들에게 수시모집에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6회이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형 간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수시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시모집 지원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수능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확인하는 것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전형이 이루어지는 수시전형에는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수시지원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 등 자신의 강약점을 각 전형의 특성과 비교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하면 된다. 그리고 수시지원은 대학별 전형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별 면접과 논술고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세우면 된다. 수사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수시지원자들도 수능 최저를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를 일정한 수준은 해야 한다.

1. 최상위권 점수대: 최상위권 점수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학과와 의학계열 및 KAIST를 포함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에 지원가능한 점수대이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논술전형, 교과 전형 순이다. 종합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1단계 서류평가 후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교과와 비교과의 종합적인 수준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면접 대비도 필요하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연세대 활동우수형, 고려대 수시전형 등은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의대 수시의 경우 수도권은 종합전형, 지방은 교과전형으로 많이 선발한다. 수도권 소재 의대의 경우에는 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도 있다. 의대 종합전형도 서류평가가 중요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다. 논술전형의 경우 수학과 과학문제가 출제되며 논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므로 내신이 좀 낮아도 논술에 자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연세대 의예과가 작년보다 25명 늘어난 40명을 선발하고 울산대는 유일하게 지역인재전형에서 논술로 4명을 선발한다. 특히 가톨릭대, 울산대, 부산대 의예과 등은 의대논술이 따로 출제되며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논술과 면접은 기출문제를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준비하면 된다. 특기자전형은 종합전형과 유사하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의 의대에서 주로 선발한다. 교내활동뿐만 아니라 수상실적이나 특정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없다. 지방 의대는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이 많은데 모두 교과전형이고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포스텍을 제외한 이공계 특성화대는 수시지원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수시모집의 94%를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면접이 아주 어렵고 중요하다.

2. 상위권 점수대: 상위권 점수대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와 지방 국립 대학 상위권 학과에 지원 가능한 점수대이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데 논술 전형도 비중이 크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선발인원이 아주 적다. 종합전형은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한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1단계 서류 통과 후 2단계에서 면

접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능력과 전공적합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므로 1단계를 통과한다면 내신이 좀 낮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논술전형은 내신 등급 간 점수 차가 적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 수학과 과학문제가 주로 출제되며 학생부 보다는 논술 실력이 당락을 좌우하므로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논술에 자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서강대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수리논술만 출제되므로 수학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들이 지원해볼 만 하다. 지방 국립대학의 상위권 학과는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내신 성적은 좋지만 비교과 활동이 별로 없거나 대학별 고사 준비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적극 지원해 보는 것이 좋다. 재학생의 경우 교과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반영되고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능 공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중위권 점수대: 중위권 점수대: 중위권 점수대는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사립대 인기학과를 지원 가능한 점수대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주로 교과 전형을 통하여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교과전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당락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전형요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다. 단 동일한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 내신 성적의 차이가 크다. 인기학과의 경우 내신이 상위권 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5등급대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를 통해 학업역량을 확인하므로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지원 전공 관련 활동을 성실히 한 학생이 유리하다. 서류평가 시 전공적합성이 중요하므로 지원동기 및 학교생활을 통해 준비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면접의 비중이 크다. 면접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기출문항과 면접 방식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면 된다. 학생부 기록이 충실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적성고사를 준비해 볼 수 있다. 적성고사 전형은 모든 대학이 교과60% + 적성40%로 선발하는데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고 적성고사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 고려대(세종)와 홍익대(세종)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도 없다. 내신과 수능이 동시에 취약하다면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다.

4. 하위권 점수대: 하위권 점수대는 주로 지방 소재 대학에 지원 가능한 점수대이다. 지방 사립대는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5~6등급의 내신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다. 특히 지방 국립대 비인기학과는 내신 6등급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므로 대학들이 공개하는 입시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이 점수대에서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특기를 살리고 취업도 대비할 수 있는 전문대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대학도 전체 모집인원의 86.4%인 17만 8,213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능이전과 수능이후에 각각 1번씩 총 두 번에 걸쳐 원서접수를 한다. 수능 이전 모집 시기는 지원자의 편의를 고려해 9월 11일부터 일제히 접수를 시작하여 29일까지 19일간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전형요소는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등 4개가 있으며 대부분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전형요소가 4년제 일반대학의 전형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대학의 준비와 동시에 전문대학 수시를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요소를 모두 활용하는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1개 또는 2개 이내의 전형요소만 활용하므로 대학별 전형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대비하면 합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